致　辭

国際病院联盟地域会議 에서

2000년까지 全人類의 健康成就를……

国務総理 陳　懿　鍾

尊敬하는「크론보그」国際病院联盟会長, 会員国代表, 그리고 内外貴賓 여러분!

本人은 오늘 国際病院联盟地域会議를 우리나라 首都 서울에서 開催하게 된 것을 온 国民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하며, 大韓民国政府와 国民을 대신하여 우리나라를 찾아주신 各国代表 여러분을 衷心으로 歡迎합니다.

国際病院联盟은 創設以來 지금까지 五十五年동안 疾病으로부터 人類를 保護하려는 끊임없는 努力으로 人間의 健康増進에 많은 業績을 쌓아온 줄 압니다.

病없이 健康하게 사는 것은 人類의 共通된 所望이며 따라서 모든 国家는 国民의 健康増進과 福祉向上을 国家目標로 삼고 多様한 福祉施策을 施行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努力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疾病의 苦痛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最新 現代医学으로도 고칠 수 없는 疾病들이 人間의 삶을 威脅하고 있읍니다.

特히 아시아·西太平洋地域에 있어서는 急速한 産業化와 都市化로 말미암아 새로운 類型의 疾病이 発生하고, 病院을 찾는 医療需要人口가 急激히 増加하고 있으며 特히 地域間, 国家間에 医療資源이 고루 配分되지 못하고 있는 実情입니다.

이러한 狀況에서 오늘의 이 地域会議는 더 없이 貴重한 모임으로서, 이 地域의 国家들이 여러분에게 거는 期待는 매우 크며 그만큼 여러분의 任務와 使命은 莫重한 것입니다.

本人은 여러분이 모두「히포크라테스」의 宣誓에 따라 一生을 人類奉仕에 바치고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学術的 知識과 豊富한 経験을 서로 交換하고 友好協力을 増進하려는 努力도 바로 이 崇高한 人類奉仕精神을 実践하기 為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本人은 오늘 開幕되는 이 地域会議가 비록 짧은 期間이지만 이 地域 모든 国家의 医療水準을 向上시켜“二[redacted]類의 健康達成”이라는 共通目標를 実現시킬 수 있는 転機가 되기를 期待해 마지 않습니다.

이러한 目標를 成就하기 為해서는 国際病院联盟을 비롯하여 各会員国들이 共同의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大韓民国政府도 모든 会員国과 더불어 보다 緊密하게 協力해 나갈 것임을 이자리를 빌어 闡明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医術이 貴重한 人命을 救하는 어진 技術이라는 뜻으로 이를 “仁術”이라고 일컬어 왔고 医業에 従事하는 사람들을 尊敬하고 推仰하는 伝統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医術에는 国境이 있을 수 없으며 医療人들은 人種과 宗教, 理念과 体制를 超越하여 한 家族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大韓民国政府와 国民은 国際協力의 重要性을 깊이 認識하고 그동안 모든 分野에서 対外開放政策을 꾸준히 追求하여 왔으며 特히 医療分野에 있어서 国際協力은 눈부신 成果를 이룩하였읍니다.

뿐만아니라 안으로는 福祉社会의 建設을 国政指標로 삼고 보다 많은 国民에게 보다 質이 좋은 医療惠澤을 提供하려는 努力을 推進해 오고 있읍니다. 会員国代表 여러분!

本人은 오늘의 이 地域会議가 二千年代를 向한 病院의 役割과 機能을 拡大하여 疾病의 苦痛이 없는 밝은 아시아·西太平洋地域을 이룩하기 為한 里程標가 되기를 期待해 마지 않습니다.

国際病院联盟을 비롯한 아시아病院联盟과 大韓病院協会의 無窮한 発展을 祈願하면서, 外国代表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머무시는 동안 健康과 즐거움이 함께하며 大韓民国訪問이 所重한 追憶으로 오래오래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 会議를 準備하는데 애쓰신 関係人士 여러분의 勞苦를 거듭 致賀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幸福이 깃들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